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Experience Space for mysterious sea route in Jin-do island

당선작 _ 이순미 정화원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지위치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신92-1번지 일원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문화및 집회시설, 전시장
대지면적	4,176.53㎡
건축면적	1,206.56㎡
연면적	1,387.20㎡
건폐율	28.89%
용적률	33.21%
규모	지상 3층
발주처	진도군청
설계담당	백민곤, 김기현, 김도용, 임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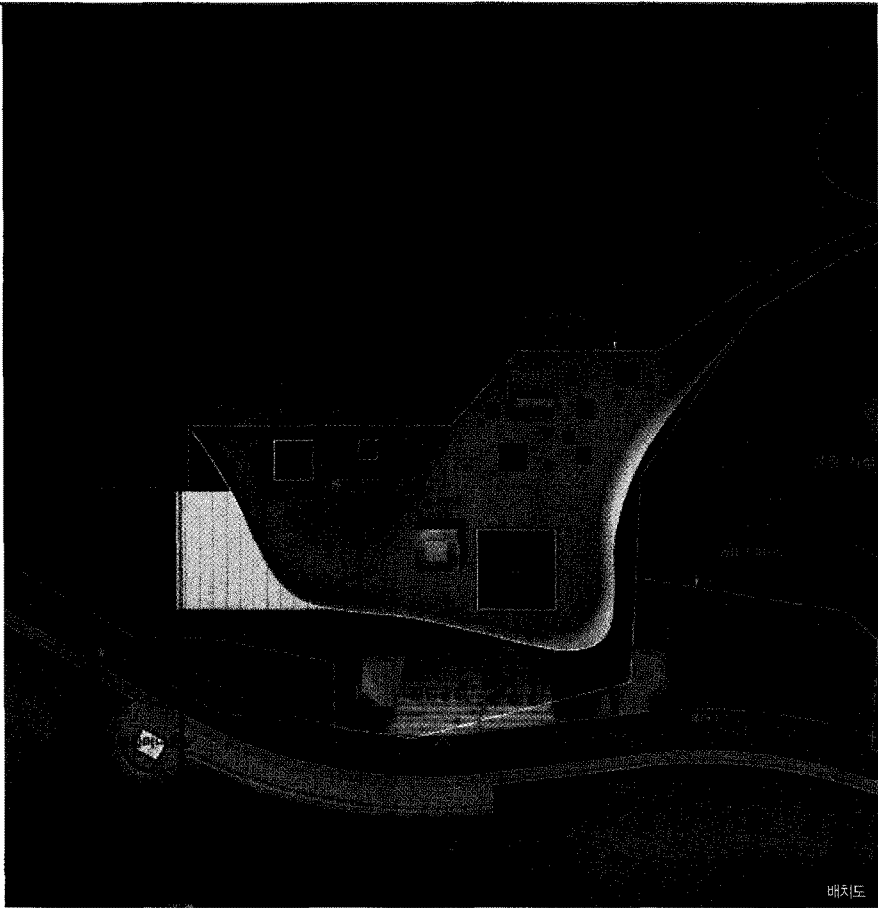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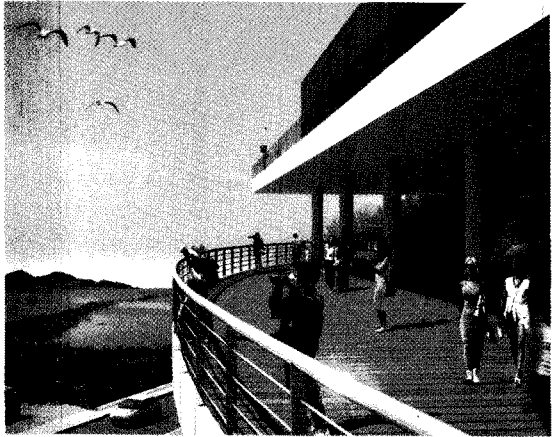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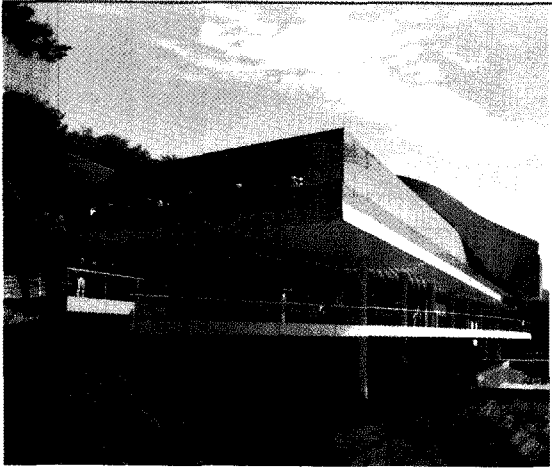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이 위치할 곳은 진도군 화동마을 신비의 바닷길 전설이 깃든 뽕할머니상 후면이다. 본 계획안은 자연지형과 주변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녹지와 오픈스페이스가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 건물로 계획하였다.

건물 컨셉은 '천공의 섬 (Floating Island)' 이다. 진도군이 갖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신비의 바닷길, 주변 컨텍스트를 반영하여 자연지형위에 섬을 띄운다는 컨셉으로 접근하였으며, 신비의 바닷길과 진도군만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과 상징성을 갖도록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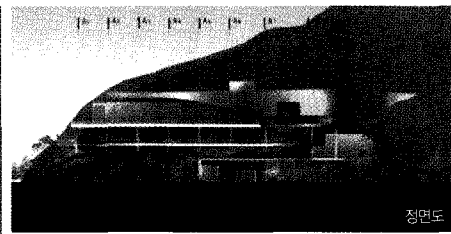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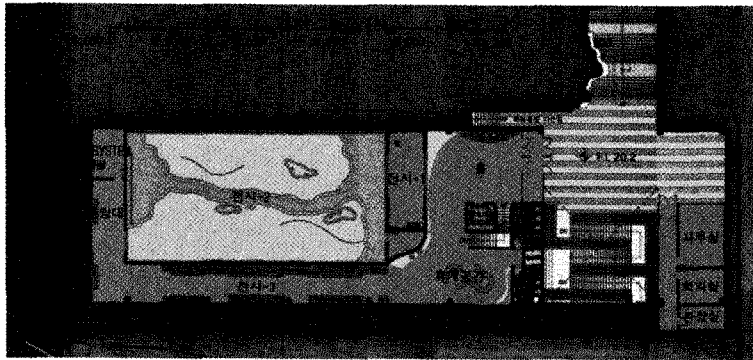
건물은 평상시와 행사시 다양한 인원의 수용과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전면과 후면에 진입광장과 기존 자연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공간의 성격별 수직조닝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진입광장 → 영상관 → 에코 커뮤니티 데크(포토존) → 체험관 → 햇살언덕 → 기존전망대로 연계되는 건물로 계획하였다.

앞으로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을 통해서 우리나라만의 축제가 아닌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세계 속의 축제로 거듭났으면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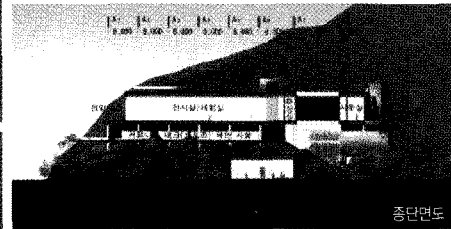
배치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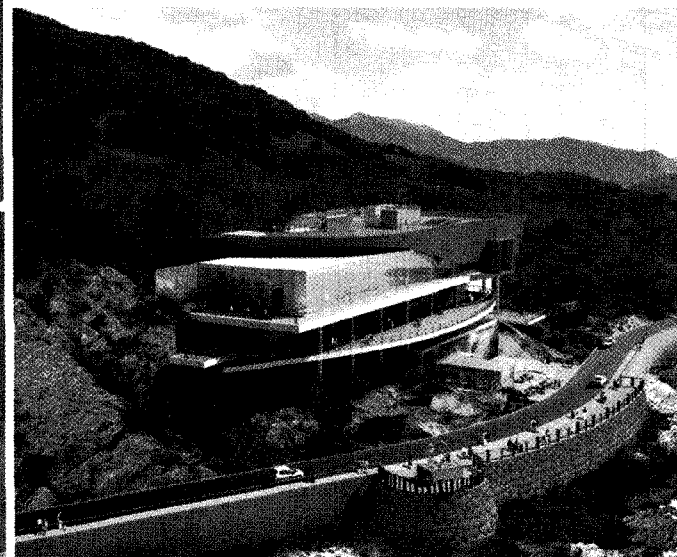
우측면도



중단면도



황단면도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Experience Space for mysterious sea route in Jin-do island

우수작 _ 박동준 정회원
(주)그림포에이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산92-1번지 일원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3D영상관, 체험관, 전시관, 전망대
대지면적	3,874.61㎡
건축면적	829.76㎡
연면적	1,230.90㎡
건폐율	21.42%
용적률	31.77%
규모	지상 2층
설계담당	김용준, 장지훈, 마재열, 정재원, 조성호, 정하연, 강은이

Flow of the Nature

바닷길의 시작점에 면한 가파른 경사의 돌산인 계획대지의 특성을 감안하였다. 자연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라는 입장에서 기존 지형의 등고선을 조형화하는 자연친화적 체험관을 지향했다. 체험관의 형태는 진도의 부드러운 해안선 및 바닷길의 역동적인 흐름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곳이 뽕할머니 전설과 신비의 바닷길 축제, 진도의 미래를 담는 기적의 장소로 문화,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자연과 공생하는 체험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체험관의 조형 및 입단면 계획은 다음의 세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었다.

상징적 요소

국내 최대 규모의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계획대지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닷길 - 체험관 - 회동전망대의 강한 축을 구성한다. 체험관은 바닷길과 관련하여 시각적, 심미적, 위치적으로 구심점을 형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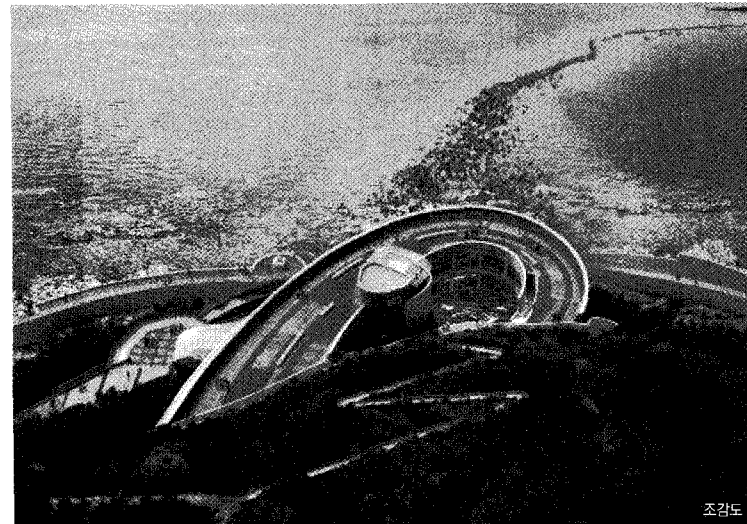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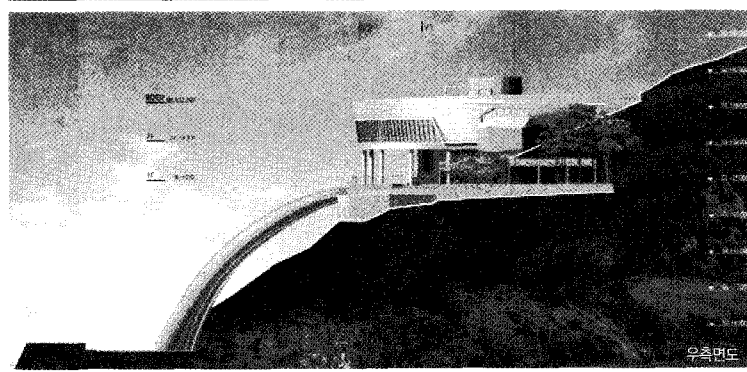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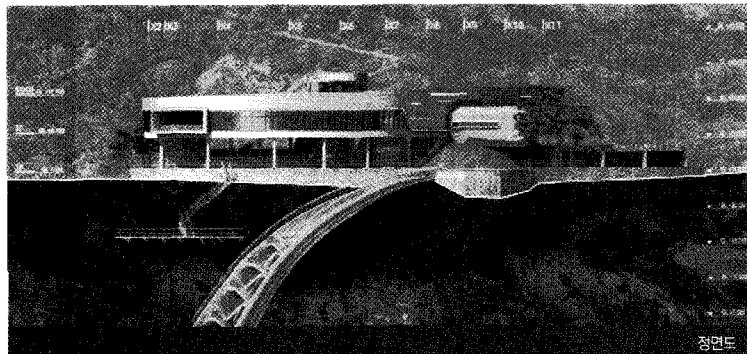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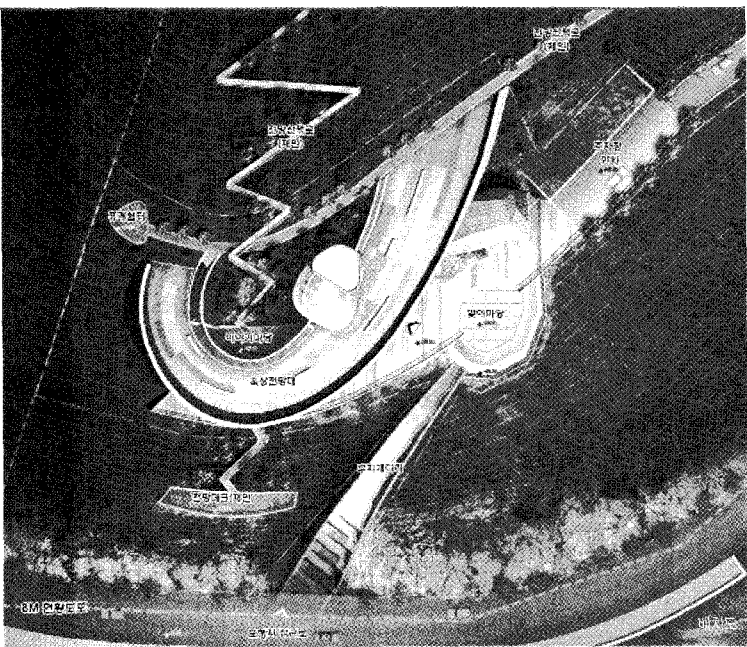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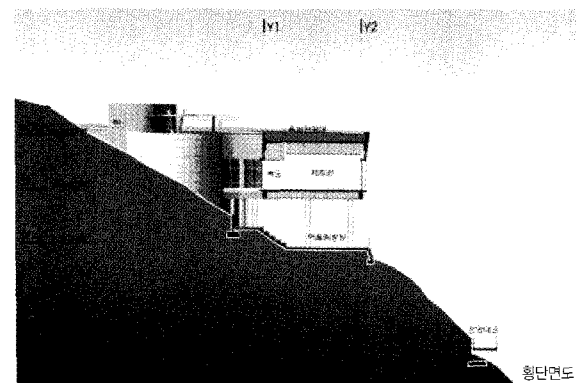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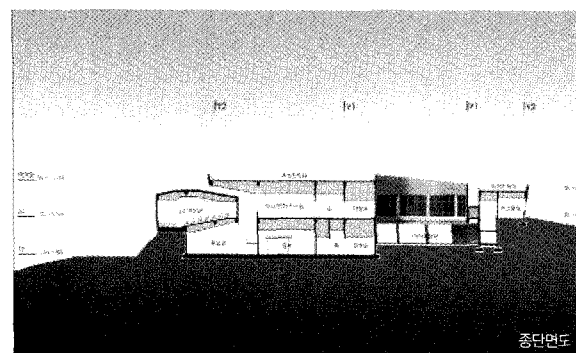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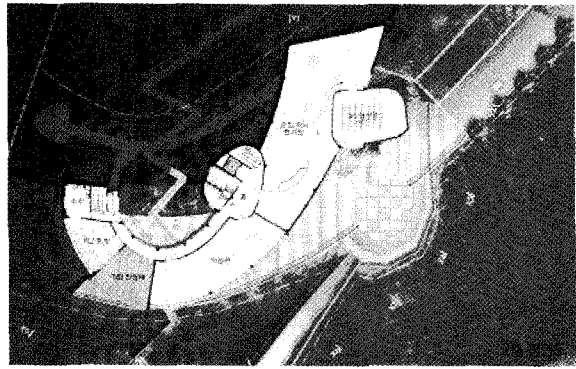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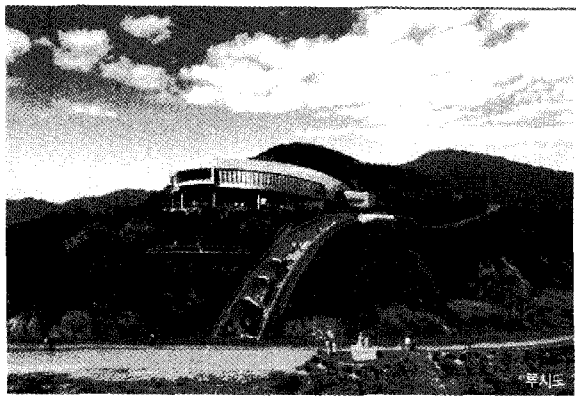
자연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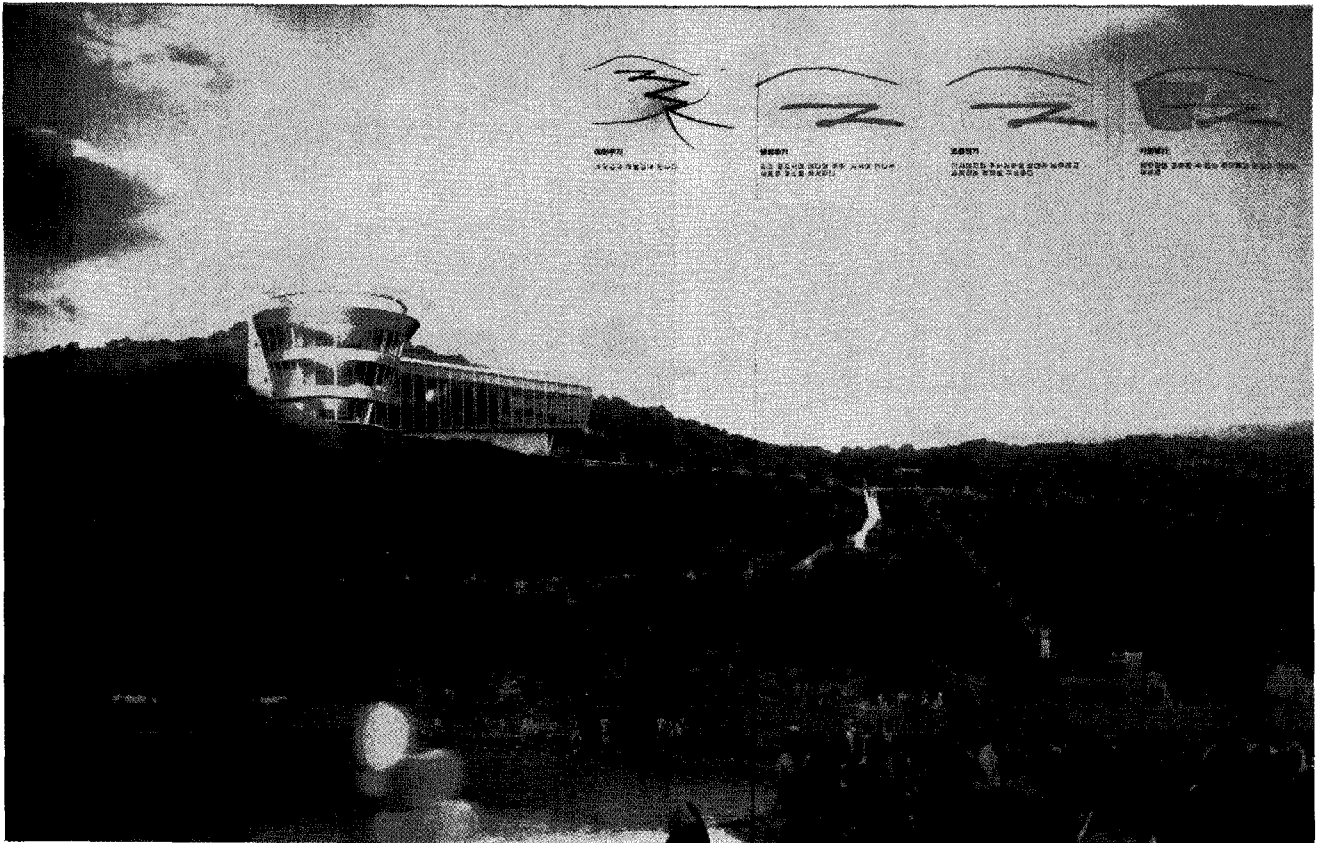
체험관은 계획대지가 갖는 자연의 커를 그대로 살려 형상화했으며 돌산으로 이루어진 진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3D영상관의 돌맹이 형태 및 자연석 쌓기 등의 외부마감에 적용하였다.

설화적 요소

바닷길과 관련된 뽕할머니 전설에 등장하는 무지개, 망부석 등의 설화적 요소를 조형화하여 체험관 자체에 이야기 거리를 두고자 하였다.

자연의 등고선을 따라 건물의 형태를 담아냄으로써 드러내지 않고 자연에 묻힌 듯한 문화와 휴식의 장소로 문화적 매개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하였다. ■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Experience Space for mysterious sea route in Jin-do island

가작_ 남상득 정회원

(주)씨엔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산 92-1번지 일원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구역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	4,132㎡
건축면적	936.33㎡
연면적	1,353.48㎡
건폐율	22.66%
용적률	32.75%
규모	지상 3층
설계담당	백유미, 이정만, 권도연, 임경빈

바닷길은 산을 따라 하늘로 뻗어 새로운 녹색길로 열리고 그 길의 끝자락에 "바다와 우주, 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장소"가 구축된다.

계획의 기본방향

바닷길 체험관은 신비의 바닷길의 연장선상에서 구축되어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전체적인 매스는 길을 모티브로 하여 전체적인 동선을 결정하고 그 위로 공간이 생성되는 형태로 계획하였으며, 전망대는 하늘을 향해 뻗어 나가는 사선을 이용하여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진도의 바닷길을 상징하였으며, "바다와 우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강화하였다.

건축계획

- 배치계획

건물은 바닷길에서의 인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변 녹지의 흐름에 동화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기존의 전망대 시설과 장래계획에 포함된 상업, 숙박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방문객의 다양한 체험을 유도하고,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도록 계획하였다.

- 동선계획

1층의 주출입구부터 전시공간을 지나 옥외공간까지 이르는 전체적으로 명쾌한 직선의 전시 동선을 계획하여 방문객의 효율적인 관람을 유도하였다. 또한 시설 기능에 따른 수직동선의 분리를 통해 이용편의 및 관리 용이성을 증대하였으며, 1층의 주출입구 뿐만 아니라 3층의 부출입구를 두어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목적 동선을 확보하였다.


- 평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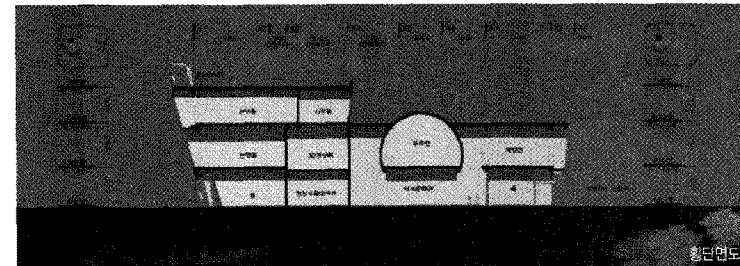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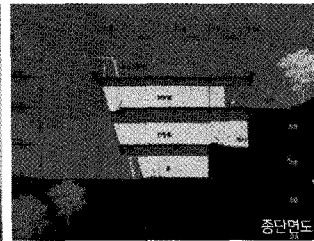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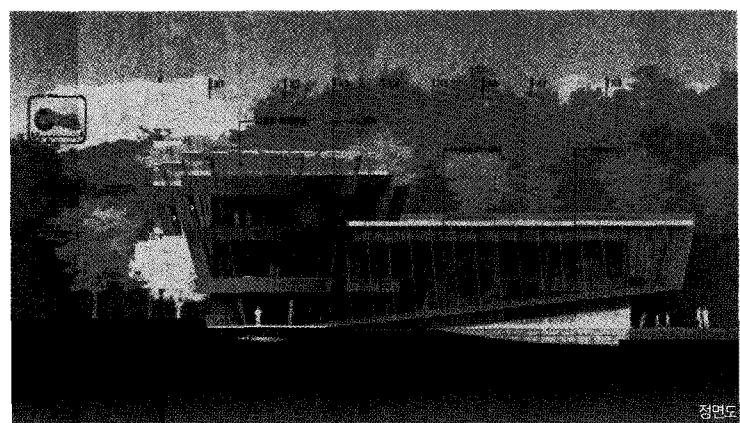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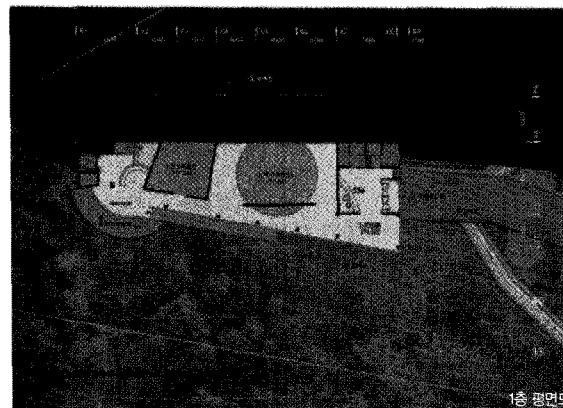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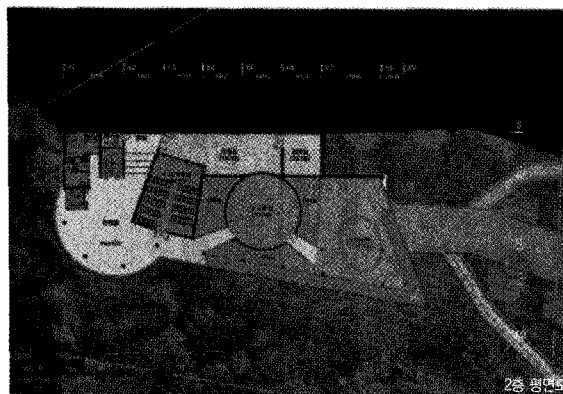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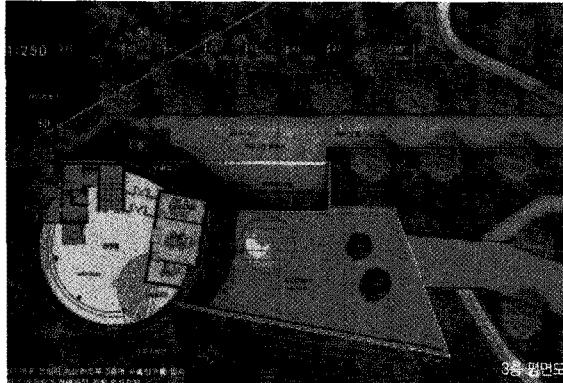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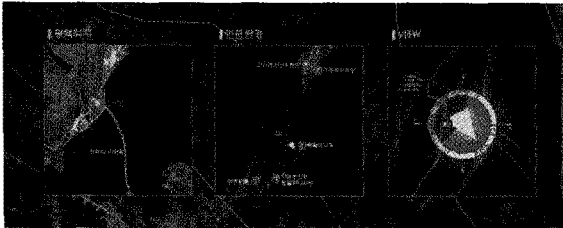
건물은 크게 각기 다른 3가지 공간(전시공간, 전망대, 편의시설)으로 계획되었다. 이 공간들은 유기적으로 엮여져서 관람객의 편의를 고려하는 한편,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 입면 계획

건물의 입면에는 소나무가 다수 분포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소나무의 곧게 뻗은 수직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수직 프레임 도입, 녹지와 건물을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계하였다.

- 단면계획

절토를 최소화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로 계획하였으며 기존 화동전망대의 시야확보를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배치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지측면도

중단면도

횡단면도